

## 외국인류학생들의 우리 말 땀음토사용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오용현상과 그 해결방도

최 승 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문법구조도 짚었습니다. 문법구조가 짚었다는것은 언어가 그만큼 발전되었다는것을 말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우리 말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자랑스러운 민족어이다. 우리 말은 어휘와 표현들이 풍부할뿐아니라 문법이 또한 짚여있어 그 어떤 사상감정도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는 우수한 언어이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대외적권위가 더욱 높아가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속에서는 우리 말을 배우려는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속에서 나타나는 어휘뿐아니라 문법오용을 바로잡아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2~3년정도 되는 외국인류학생들이 쓴 작품들에서 땀음토를 잘못 사용한 자료들을 수집분석한데 기초하여 그 류형과 원인, 해결방도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땀음토는 우리 말에서 문장의 끝땀음을 나타내는 서술토이다.

언어오용은 해당 언어의 문법규칙과 사용규범을 어겨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우습게 들리는 말을 말한다.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류학생들속에서 토오용은 그중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말의 전체 토 가운데서 땀음토는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땀음토는 기본적으로 창조되는 문장수만큼 쓰인다.

땀음토 가운데서 문체나 말의 류형(입말, 글말)에 관계없이 두루 많이 쓰이는것은 《다》와 《습니다/ㅂ니다》이다.

땀음토의 쓰임을 볼 때 대체로 《다》가 69%, 《습니다》가 25%, 《ㄴ가》가 1%, 《는가》가 1%, 《자》가 0.5%, 《습니까》가 0.5%, 기타(29개)가 3%이다.

우리 말의 땀음토에서는 법범주체계, 말차림범주체계가 뚜렷이 나타난다.

외국인류학생들이 땀음토를 틀리게 사용하는데는 몇가지 류형이 있다.

우선 외국인류학생들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권유할 때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땀음토 《시오》를 언어례절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현상들이 있다.

외국인류학생들이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땀음토 《ㅂ시다》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땀음토 《시오》를 쓰는 경우가 있다.

례: ① 자, 이젠 준비가 다됐으니 떠나시오.×

② 길을 줌 내시오.×

### ③ 줌 조이시오.×

실례 ①은 외국인류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갈 준비가 다되었기때문에 운전사에게 《자, 이제 준비가 다됐으니 떠납시다.》라고 해야 할것을, 실례 ②는 사람들이 많은 속으로 사람이나 무엇이 지나가려고 할 때 《길을 줌 냅시다.》라고 해야 할것을, 실례 ③은 자리가 없거나 비좁아서 《줌 조입시다.》라고 해야 할것을 잘못 말한것이다.

이러한 실례들은 조선어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는 외국인류학생들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교수자는 뻗음토 《ㅂ시다》가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권유,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며 뻗음토 《시오》는 명령의 의미를 나타낸다는것을 강조해주어야 한다.

또 언어례절표현에서의 이 토들의 쓰임을 잘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외국인류학생들이 뻗음토 《ㅂ시다》를 동사 《말다》에 쓰는 경우에 뻗음토 《ㅂ시다》대신에 《읍시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교수자가 뻗음토 《ㅂ시다》를 가르치면서 단순히 앞단어가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ㅂ시다》를,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읍시다》를 쓴다고 가르치면 학생들이 틀리게 말하거나 틀린 문장을 지을수 있다.

실례로 교수자는 틀린 문장 《마음을 놓지 말읍시다.》에서와 같이 용언의 말줄기가 《ㄴ》로 끝나는 경우에 자음 《ㄴ》이 탈락되기때문에 다른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와는 달리 《읍시다》를 사용하지 말고 뻗음토 《ㅂ시다》를 사용하여 《ㅂ시다》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날다-냅시다, 갈다-갑시다, 널다-넙시다)

또한 외국인류학생들이 모국어의 영향으로 뻗음토를 해당 단어의 특성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현상들이 있다.

실례를 들어 《내가 어제 시간을 지키지 못해 미안한다.》, 《내 동생의 공부를 도와주어 감사한다고 인사했습니다.》와 같은 틀린 문장을 들수 있다. 이 문장들에서 《미안하다, 감사하다》는 형용사이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류학생들은 이 단어들에 뻗음토 《ㄴ 다》를 사용하여 오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교수자는 해당 단어의 품사소속을 잘 알고 사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류학생들이 용언술어에 쓰이는 뻗음토를 체언술어에 사용하는 현상들이 있다. 즉 체언뻗음형에 뻗음토 《ㄴ 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틀린 문장 《이 실습은 나의 조선어수준을 높이는데 좋은 기회이다.》를 들수 있다. 뻗음토 《ㄴ 다》는 동사인 경우에 써야 하는데 체언술어인 《기회이다》에 사용하다보니 오용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위의 실례와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가 《기회》가 명사이므로 뻗음토 《ㄴ 다》가 아니라 체언에 쓰이는 뻗음토 《다》를 사용해야 한다는것을 알려주어 바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류학생들이 뻗음토를 어휘들의 의미에 잘 어울리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다.

실례를 들어 틀린 문장 《조선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다.》, 《조선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다.》에서 《ㄴ 다》의 《ㄴ》은 현재의 시간적의미와 지속의 태적의미를 나타낸다. 《조선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다.》고 하면 지금 풍부한 자원을 가지는 행동이 진행되는것으로 되기에

문에 틀린 문장으로 된다. 풍부한 자원은 예로부터 가지고있는것이므로 《가지고있다》로 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음토 《고》나 《었》이 행동의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먹고 가다》와 《먹으면서 가다》, 《먹었다》와 《먹는다》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조선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다.》로 되어야 한다.

외국인류학생들이 하나의 문장에서 대명사 《너희, 너》와 뱃음토 《요》, 《비니까, 비니다》를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현상들이 있다.

실례를 들어 문장 《너 러명거리에 가본적이 없지요? 난 갔됐어요.》와 《너희들은 강의가 끝나면 기숙사에 갑니까?》에서 대명사 《너, 너희》는 낮춤의 의미를, 《요, 비니까》는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오용현상이 나타났다.

하나의 문장에서 이처럼 말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대명사와 뱃음토를 사용하면 오용현상이 생기는것이다.

이 경우에 교수자는 상대방을 낮추어 가리키는 대명사 《너, 너희》와의 의미적연관이 이루어지자면 낮춤의 의미를 나타내는 뱃음토 《지(없지), 어(갔됐어), 니(하니)》를 사용해야 한다는것을 원리적으로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교수자는 다양한 뱃음토들을 문장의 어휘들의 의미에 맞게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여 우와 같이 틀리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밖에도 교수자는 외국인류학생들의 입말에서 우리 말의 물음을 나타내는 뱃음토 《지》와 서술문의 뱃음술어에 쓰이어 앞의 사실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명사 《말》(례: 바깥일부터 먼저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말입니다.), 바꿈토 《이》, 뱃음토 《비니다》를 결합하여 쓰는 현상(례: 래일 대표단이 오지 말입니다.), 뱃음토 《요》를 말을 듣는 상대방에 대한 낮춤의 의미를 나타내는 뱃음토 《구나》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현상(례: 굽구나요, 오는구나요), 뱃음토 《요》를 같은 지위의 사람이나 아래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사용하는 현상들을 비롯하여 뱃음토사용에서 오용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교수자는 웃사람이라고 하여 다른 뱃음토의 의미에는 관계없이 지나치게 뱃음토 《요》를 사용하(례: 왔구나요.)면 안된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뱃음토 《지》는 억양의 도움으로 문장에서 물음의 의미를 나타내며 말차림은 낮춤의 의미를 표현한다. 그런데 낮춤의 의미를 나타내는 뱃음토 《지》뒤에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뱃음토 《비니다》를 사용하(례: 하지 말입니다. 좋지 말입니다.)면 말차림의 건지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용으로 된다.

이처럼 외국인류학생들이 우리 말 뱃음토사용에서 오용을 나타내는것은 그들이 우리 말 뱃음토들이 나타내는 례의적의미표현을 충분히 리해하지 못한데 있으며 뱃음토에 의한 례의적의미표현을 충분히 숙련하지 못한데 있다.

우리 말 뱃음토를 틀리게 사용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자가 우리 말에서 시킴을 표현할 때 직선적인 시킴문장형식보다 다른 문장형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례의를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는것을 외국인류학생들이 잘 알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다시말하여 시킴을 권유, 의도, 가능성, 희망이나 념원의 표현형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면 례의에 맞게 시킴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도록 해야 한다.

시킴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거나 요구하는 문장으로서는 그것이 나타내는 기본의미는 명령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례의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존경의 뜻빛같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부터 교수자는 외국인류학생들이 시킴을 표현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례절있게 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한 방향에서 문장을 구사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류학생들이 입말교제에서 시킴을 《근수 없는가(있는가)》의 가능성의 의미를 가진 물음의 형식으로 예둘러 말하여 상대방에 대한 례의를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실례를 들어 《운전수동무, 이젠 떠나십시오.》를 《운전수동무, 떠날수 없습니까?(떠날수 있습니까?)》, 《주소를 알려주십시오.》를 《주소를 알려주실수 없습니까?(알려주실수 있습니까?)》, 《컴퓨터를 좀 봐주십시오.》를 《컴퓨터를 좀 봐주실수 없습니까?(있습니까?)》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례절있게 대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성의 의미를 가진 물음의 형식으로 바꾸어 상대방에 대한 례의를 표현하는것은 상대방이 일정한 능력이나 수단 또는 조건이 충분히 되어있는가 등 그의 사정이나 형편을 알아보는것으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것으로 된다.

입말에서 시킴을 《아/어/여보다》의 형식으로 바꾸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례절있게 대하도록 해야 한다.

《아/어/여보다》의 형식은 어떤 행동을 남에게 직접 시키는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는것으로 표현하기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례의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다.

입말교제에서 시킴을 《~면 하다》의 의미를 가진 희망이나 념원의 형식으로 바꾸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례절있게 대하도록 해야 한다.

희망으로 시킴을 표현하는것은 자기가 바라는것을 상대방에게 넌지시 알려주는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시킴을 표현하는것보다 례의적이라고 볼수 있다.

례를 들어 《이젠 떠나십시오.》를 《이젠 떠났으면 합니다.》라고 하거나 《시계를 수리해 주시오.》를 《시계를 수리해주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례절있게 대하는것으로 된다.

입말교제에서 시킴을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는 형식으로 바꾸어 례의를 나타내기도 한다.

의도로 시킴을 표현하는것은 상대방에게 지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과 일치시킴으로써 상대방을 존경하는 표현으로 되게 한다.

례를 들어 《영남동무, 이젠 떠나십시오.》를 《영남동무, 떠나는게 어떻습니까?》, 《철이동무를 도와주십시오.》를 《철이동무를 도와주는게 어떻습니까?》라고 하는것이 상대방에게 례의있게 말하는것으로 된다.

이처럼 교수자는 외국인류학생들이 우리 말의 례의관계를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문장으로 예둘러 표현할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수자가 맺음토크가운데서 입말체의 색채를 진하게 나타내는 토들을 외국인류학생들이 잘 알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말에는 말차림을 나타내는 맺음토에 《비니다/습니다, 요, 오/소, 다오, 게, 나, 지》등이 있으며 양태성을 나타내는 맺음토에는 《더구나, 더라, 던데, 렴, 마, 비데》등이 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맺음토에는 《구만, 누만, ㄴ결, 거든, 다구야, 다니,

다니까, 라구야, 라니, 라니까, 램》 등이 있고 입말체뱃음토에는 《요, 야, 니》 등이 있다.

실례를 들어 《선생님이 오시였습니다.》(높임), 《그의 그림이 마음에 들더군요.》(목적), 《현대적인 러명거리가 정말 멋있는걸.》(감탄), 《너희들은 동물원에 구경하러 가니?》(입말체토)에서 뱃음토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난다.

또한 교수자가 외국인류학생들로 하여금 뱃음토들의 의미와 그 쓰임을 잘 알고 정확히 사용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문법적형태들사이에 존재하는 순서제약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말의 토들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그것이 말줄기나 말뿌리에 무질서하게가 아니라 엄격한 순서밑에 첨가되며 어떠한 문법적형태도 반복적으로 쓰일수 없다는 제약을 가지고있다.

실례를 들어 《뵈히시였습니다》에서 토들은 처음에 상토 《히》, 다음 존경토 《시》, 다음 시간토 《였》, 다음 뱃음토 《습니다》의 엄격한 순서로 쓰인다. 만일 그 순서를 바꾼다면 틀린것으로 된다.

또 《뵈+히+시+였+습니다+습니다》, 《뵈+히+시+시+였+습니다》에서 뱃음토 《습니다》나 존경토 《시》처럼 반복하여 써도 틀린것으로 된다. 상토 《히》, 과거시간토 《였》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용언이 문장구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자리토가 반드시 첨가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실례를 들어 형용사 《다심하다》가 문장구성에 참가할 경우에는 《어머님이 다심하+시+였+다, 어머님이 다심하+시+였+습니다.》처럼 자리토인 뱃음토 《다, 습니다》가 쓰이어야 한다는것을 외국인류학생들이 잘 알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언어교육과 언어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력사적서한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에서 박사원에서는 물론 본과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을 과학연구사업에 적극 인입시키고 실기능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실험과 실습, 실기련습의 비중을 높이며 실천능력을 위주로 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언어교육과 언어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는데서는 강의와 련습을 옳게 배합하며 련습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련습에서 중요한것은 언어행위의 4가지 요소인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련습의 체계성과 순차성을 보장하며 이것을 유기적으로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다.

련습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옳게 결합하며 외국인류학생들의 사고를 적극 계발시킴으로써 그들의 자립성을 최대한으로 높여주어 주동적인 탐구자, 학습자가 되게 하는것이다.

언어교육과 언어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는데서는 언어환경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는것도 중요하다.

외국인류학생들이 생활하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잘 듣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정상적으로, 의식적으로 듣는것은 듣기능력을 키워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어휘와 토들을 빨리 습득하며 생활언어의 문장류형들을 파악하는데서도 좋은 계기로 된다.

교수자는 외국인류학생들이 생활하는 주변과 거리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여러가지 직

관선전물을 옹계 리용하도록 하며 텔레비죤도 계획적으로 시청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밖에 신문, 잡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들을 적극적으로 읽게 하는것도 단어와 토들을 눈에 꼭 익게 하고 입에 오르게 하며 많은 토들을 습득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천에 자유롭게 써먹을수 있는 언어를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견학실습, 야외수업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류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서 더욱 공고히 하게 하기 위하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교육문화기관들과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개성을 비롯한 이름난 곳들에 대한 참관을 자주 진행하여야 한다. 참관을 마치고는 일기, 기행문, 참관기, 수필 등을 쓰게 하여 우수한 작품들은 신문, 잡지들에도 내주고 해마다 몇번씩 지은글발표모임도 조직하여 거기에서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외국인류학생들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우리 말의 진미를 더 잘 알고 옹계 쓰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 그 방법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더 깊이있게 연구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뗏음토, 오용현상